

재활병원건립을 위한 희망천사 마라톤 결단식 개최 푸르메 재단에 기부금 전달

취재 | 임재근 기자

지난 3월 15일 푸르메어린이재활센터에서 열린 재활병원건립을 위한 2010 서울국제마라톤 푸르메 희망천사 마라톤너 결단식에 대한산업안전협회 이병천 이사가 참가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는 장애인들”이 올바른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재활병원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이번 마라톤 행사에는 이지선 씨(‘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강지원 변호사, 이봉주 선수, 배형진 씨(영화 ‘말아톤’ 실제 주인공), 신현철 SK에너지 부회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다양한 기업 및 시민 마라톤 동호회 회원 등이 참가하여 나눔의 전도사가 되어 “푸르메 희망천사” 마라톤너로 참가하였다.

특히, 교통사고로 30여 차례에 걸친 수술 후유증으로 피부가 위축되고 관절이 완전히 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9 뉴욕 마라톤을 7시간 22분의 기록으로 완주했던 이지선씨는 서울국제마라톤에 출전하면서 100명의 후원자를 직접 모집하여 <이지선 희망 1004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참가한 뉴욕 마라톤이 처음이자 마지막 완주일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100명의 천사(후원자)들과 함께 서울을 달릴 것”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또 지난해 은퇴한 이봉주 선수도 “마라톤으로 받았던 사랑을 사회에 다시 베풀어야 할 때이며 달리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고 말했다.

영화 ‘말아톤’의 실제 주인공인 배형진 씨의 어머니 박미경 씨는 “형진이가 달림으로써 장애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오는 21일에 열리는 2010 서울국제마라톤에 20여명이 참가하여 이지선씨와 함께 희망 1004 기금 모음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푸르메재단 공동대표인 강지원 변호사, 배영일 북한대학원대 교수, SK에너지 신현철 부회장, 대한산업안전협회 이병천 이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마라톤 행사에서 모은 기

금에 건립 예정인 비영리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